논어 18편 미자 1장 · 원문·풀이

微子去之，箕子爲之奴，比干諫而死。孔子曰：「殷有三仁焉。」

독음 · 미자거지 기자위지노 비간간이사 공자왈 은유삼인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며 비간은 간하다 죽었다. 처신은 달랐지만 공자는 세 사람 모두 은나라의 어진 사람이라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微 작을 미 미 / 子 아들 자 / 去 갈 거 거 / 之 갈 지

箕 키 기 기 / 爲 할 위 / 奴 종 노 노 / 比 견줄 비 비

干 방패 간 간 / 諫 간할 간 간 / 而 말이을 이 / 死 죽을 사 사

孔 구멍 공 공 / 曰 가로 왈 / 殷 많을 은 은 / 有 있을 유

三 석 삼 삼 / 仁 어질 인 인 / 焉 어찌 언 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